



회고록으로 보는 이민 시리즈

송영석 천로 역정

내형제들 이름 새긴 비석 있는 어머니 산소서 울고 또 울고

동생들 평양 이주시키려 합영회사 추진했으나 실패

(마지막 이야기)

평안북도 동림읍(岫)에서 한참 떨어진 산 기슭에 단 두 채의 영성한 집이 있었는데 좌측에 있는 집이 7살때 헤어졌던 여동생의 집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옆집 가족이 어제 밤에 어디론가 다녔어졌다는 이야기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제 기차역에서부터 동생집까지 오는 길에 주위를 계속 살펴보니 40년전 전쟁시에 내가 살던 곳의 분위기와 지금의 이곳 분위기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생집에는 먼 나라 캐나다에서 오라버니가 방문한다고 하여 군당(군청)에서 특별히 전기를 공급해 주었고 화장실도 수세식은 아니지만 약간 손을본 것 같다. 그리고 밤에는 화장실(변소)에 갈수있도록 의등도켜 주었다.

아침부터 어머니 산소에 간다고 나름대로 제(祭)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동생이 뒷마당으로 나를 안내 하더니 뒷산을 가리키며 저쪽에 엄마 산소가 있다고 말해 준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움에 눈물이 난다. 벌목공으로 가 있는 동생의 가족과, 평안북도 대관군에 산다는 막내 동생 가족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함경북도 회령에 사는 외사촌 동생도 나를 만나기 위해 어제 여동생집에 모두 와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수령님 은혜 언급한 여동생

평양에서부터 나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안내인이 "송 선생 부부와 두 여동생은 한 방을 쓰고 다른 동무들은 다 다른 방에서 자라우..." 지시한다. 방은 하나였는데 어떻게 자나 했더니 방 가운데에 카텐을 치니 결국 두 방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안내인은 군당에서 따라왔던 사람과 내일 다시 오겠시여 하고 간다. 어머니 산소에도

착했다. 비석(碑石)도 새로 세워져 있었고 비석 옆쪽으로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1958년 5월 18일 사망."

5월18일은 또 어머니 생일이 라고 여동생은 말한다. 묘비엔 묘주로 송중석 송영석 송유석,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나는 평생 보고 싶고 그리웠던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온 것이 꿈만 같다. 산소에 옆드려 가슴이 복받혀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여동생에게 하나님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말했는데 동생은 수령님이 계셔서 걱정없다는 식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 묘는 캐나다에서 온 나를 의식해 당국의 협조로 거짓으로 꾸며진 가짜묘였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 불구가 된 남동생

러시아벌목공으로 갔다는 남동생은 세번째 방북에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참 궁금하다. 기차가 하도 느리게 가니 지루하다. 하루 종일 가는 것 같다. "이제 다음역에 가서 내리면 됩니다." 감시원이 말해 준다.

평양을 떠나 몇시간을 달려가니 동생이 살고있다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다보니 먼거리에서부터 다리를심하게 절뚝거리며 부지런히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저 사람은 뭘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참 안됐다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 오는 것을 보니 너무나 놀랐다. 바로 내 동생이었다.

그 자리서 동생과 부둥켜안았다. 너무 나 불쌍하게 변한 동생의 모습에 눈물이 그칠 줄 않는다. 네가 왜 이렇게 불편한 몸이 됐냐고 물으니 동생 대답에 기가 막힌다.

"작업 중에 영양실조로 인해 관절염을 앓았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병신이 됐시여."

동행한 감시원과 함께 동생집에 도착해 보니, 내가 평

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군당으로 부터 전해 듣고 동생가족들이 다들 모여있었다.

이제야 전쟁 중에도 죽지 않고 북한 땅에 살아 있는 세 동생들을 다 찾아 다시 만나게 되니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큰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 마음은 조금 가벼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다시 헤어졌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동생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양 봉수교회 방문하다

아침 세번의 북한방문 가운데 평양봉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행과 같이 다닐 동안 일요일이라 성당에 갈 사람, 불교(절)에 갈 사람, 봉수교회에 갈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승차시킨다.

나는 봉수교회에 가는 버스에 올랐다. 도착한 다음 안내를 받고 교회에 들어갔다. 내가 이민 와서 5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보려고 전 가족과 함께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 출석할 때

였다. 밴쿠버 버나비에 있는 BC순복음 교회에서 평양을 다녀온다고 하니 교회에서 US 500불을 봉수교회에 헌금 하라고 주었다.

나는 함에 넣어 헌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내인에게 여기에서 제일 높은 관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니 한분을 소개시켜 준다 명함을 받아보니 거창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독교 연맹 서기장 고기준 목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북한기독교 최고책임자라고 한다.

나는 그분에게 캐나다 밴쿠버교회에서 특별히 봉수교회에 전할 헌금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단위에 올라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직접 목사님에게 달라고 싶다고 하니 동의를 해줘서 내 계획대로 전할 수 있었다.

자리로 돌아와 "목사님! 봉투 열어 보시고 영수증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니 종이를 찾는 것 같았다. 다시 목사님 명함 뒷면에 적어 주셔

됩니다 하니 자신의 명함 뒷면에 영수증을 적어주는 것이다. 나는 일단 임무를 완수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그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그곳 평양에 살고있는 교인들 약 200여명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깊은 동포애를 느끼면서 또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합영계약을 맺다

북한을 방문하면서 동생 가족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가지로 고민 중에 첫 방북때 전총림사장으로 부터 소개 받았던 세 사람의 북한 간부들을 다시 만나 직접 물어 보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US \$ 100만불 이상을 북한에 투자하면 온 가족들을 평양에 데려와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토론토에서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 전총림사장은 나의 여동생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결국 나는 그분이 보증이 되어 북한 간부의 소개로 북한 무역회사 사장을 소개받았다. 그는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에 공을 세우고 외화벌이 회사의 사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합의를 가지고 왔으며 내가 제시하는 금액을 (US 1백25만달러)하고 서로 사인하고 나면 그 즉시 발효(發效)되어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합영계약서인 것이다.

그날 계약식이 끝나니 상대방 사장이 오늘 점심은 자기가 옥류관 냉면으로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 또 저녁에는 나의 평양 체제시에 따라 다니던 안내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저녁에 투자 담당 부장(長官)이 저녁 시간에 잠깐 내가 투숙하고 있는 보통강 리관을 직접 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장관적인 부장도 만나고 생수합작공장을 위해 원산도 갔다왔으나 투자를 약속한 한국측 사장의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생수 품질 불량으로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캐나다로 돌아온 뒤 여러가지 급변한 한국 국내의 사정으로 더 이상 북한에 갈수도 없었고 동생들과의 연락도 끊어져버렸다.



보통강호텔서 가진 조선청봉상사와의 생수공장 합영계약

